



미국 경제위기와 여성노동

오종석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 박사과정(경제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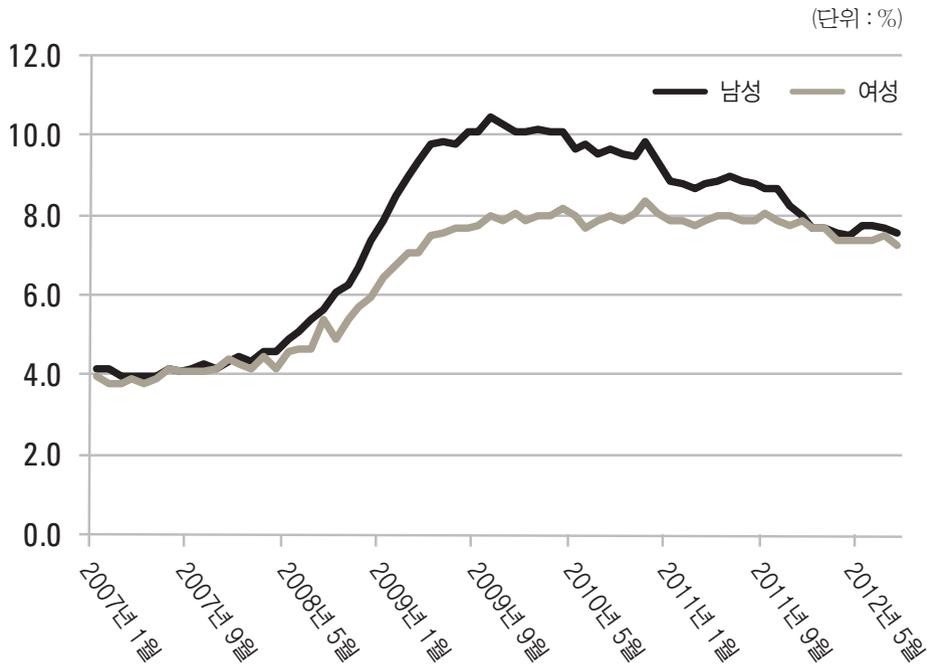
■ 머리말

2007년 12월 발발한 경제위기 이후 미국의 경기는 저점을 지났지만 대불황(Great Recession)의 늪에서부터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러 경제지표 중 특히 고용지표가 쉽게 반등하지 않는 고용 없는 회복(Jobless recovery)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실업률은 2012년 8월 현재 8.1%로 위기 이후 장기간 동안 8~9%대로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약 63%대로 198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청년층이 경제위기로 큰 타격을 받았는데, 2012년 8월 16~24세 청년실업률이 16.8%로 전체 실업률의 두 배를 웃돌았다.

여성층 역시 경제위기로 큰 타격을 받았다. 실업률만 놓고 보면 남성의 실업률이 더 큰 폭으로 등락하였고 여성의 실업률이 위기 내내 남성보다 낮았기 때문에 문제가 그리 심각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그림 1). 그러나 위기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했고, 여성의 고용량 회복이 남성보다 느렸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미국 경제위기가 여성들에게 미친 영향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량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경제위기로 인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저하가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저하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 여성 일자리가 비교적 많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음에 따라 여성 고용량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였음을 보이고자 한다. 또한 경제위기 이후 여성이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요인을 살펴보고 맺음말에서는 정책적 함의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그림 1] 20세 이상 성별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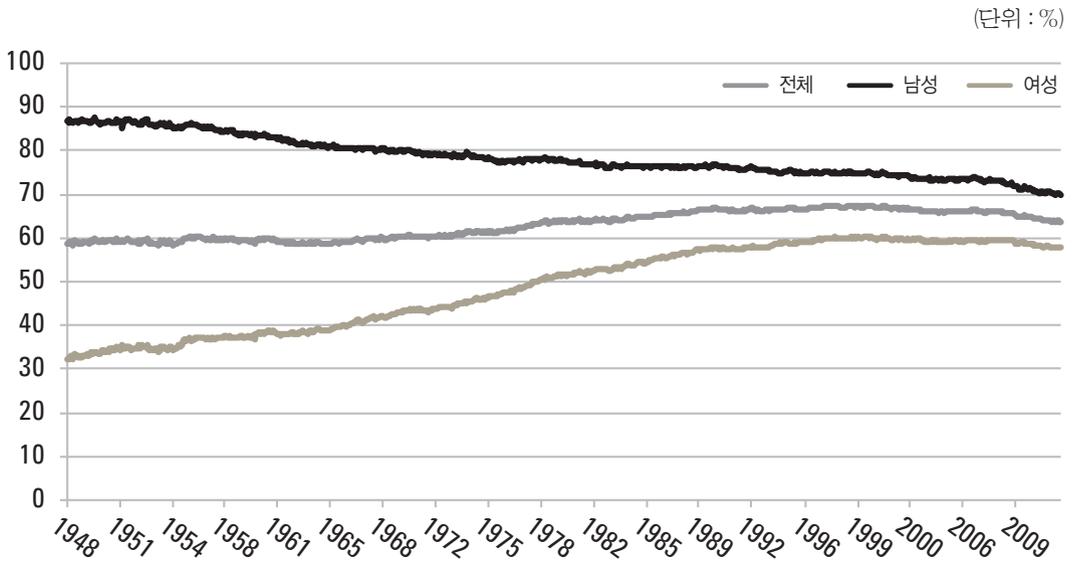


자료: 미국 인구통계조사.

■ 최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

1990년대까지 미국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계속 하락해 온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상승해 왔다. 그 결과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크게 좁혀졌고 사람들은 평등한 노동 시장의 미래를 낙관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60%대로 정체되었으며 2007년 12월 발발한 경제위기와 더불어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었다(그림 2).

[그림 2]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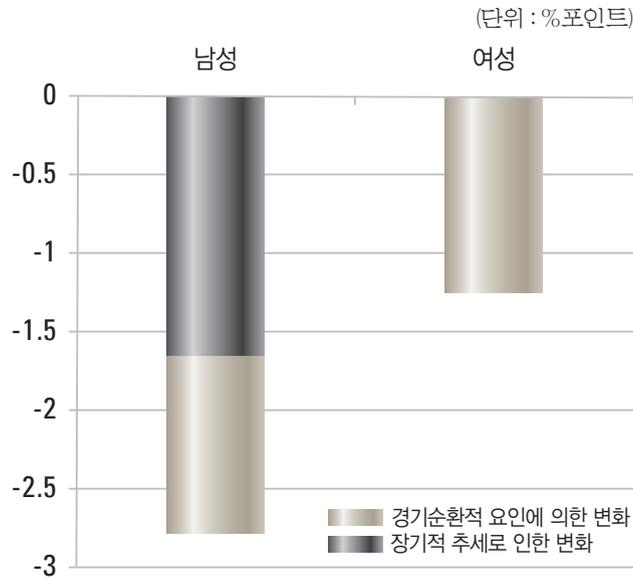
자료: 미국 인구통계조사.

2012년 8월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63%로 198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데¹⁾ 성별분석을 통해 그 하락요인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3]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요인을 비버리지 벨슨 분해기법(Beverage-Nelson Decomposition)을 이용하여 성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남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의 60% 정도가 장기적 추세로 설명되고 불황으로 인한 경기순환적 요소는 크지 않았다. 반면 여성의 경우 하락의 거의 대부분이 경기순환적 요소로 설명되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경기변동에 더욱 민감하다는 것을 말해준다.²⁾ 요컨대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저하가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을 낮게 만들었고, 향후 위기극복 과정에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회복여부가 양성평등한 노동시장의 미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 이러한 하락은 주로 인구 고령화의 장기추세를 통해 설명된다.

2) William Van Zandweghe(2012), "Interpreting the Recent Decline in Labor Force Participation", *Economic Review of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Issue Q1, pp.5~34.

[그림 3] 2007~2011년 미국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율에 대한
비버리지 넬슨 분해 결과



자료 : Williem Van Zandweghe(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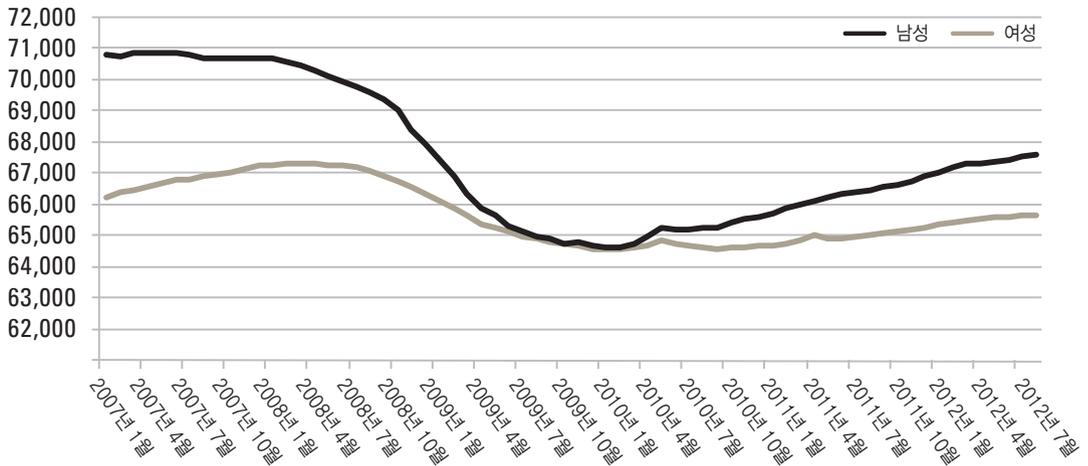
■ 경기회복기 여성고용의 더딘 회복

비농업 총임금 고용량(그림 4)을 살펴보면 경기불황은 남성과 여성노동자 모두에게 타격을 주었다. 2010년까지는 남성의 고용량이 더 큰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들은 약 600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고 같은 기간 여성은 그 절반가량인 300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다. 이는 경제위기 초기에 남성이 더 큰 타격을 받았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후 남성 고용량의 회복 속도는 빨랐다. 경기 저점인 2010년 이후 지금까지 남성 일자리는 270만 개 증가하여 경제위기 이후 사라진 일자리의 45.2%를 회복하였지만, 여성의 경우 88만 개 증가하여 38.7%의 회복률에 그쳤다.

초기 남성 고용량의 빠른 감소는 경제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이 제조업과 건설업처럼 남성노동자들이 주로 몰려 있는 산업(blue job)이라는 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여성들의 자리(pink job)가 상대적으로 많은 교육/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우 일자리 감소 속도가 빠

[그림 4] 비농업부문 총 임금고용

(단위 : 천 명)



자료 : 미국 인구통계조사.

르지 않았다.³⁾ 반면 경기회복 국면에서는 여성들의 일자리 회복속도는 남성들보다 느렸는데 그 이유는 일자리 증가가 민간부문에 집중되어 있었고, 여성들의 취업기회가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증가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⁴⁾

<표 1>은 경기회복기인 2009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산업별 고용증가율과 성별분포를 분석한 결과이다. 민간부문의 일자리 증감을 살펴보면 특별히 여성이 몰려 있는 곳의 일자리가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여성들이 민간부문의 교육/서비스업 다음으로 많이 진출해 있는 정부부문의 고용감소는 주목할 만하다. 2012년 6월을 예로 들어보면 일자리의 순(純)증가량이 64,000개였는데, 민간부문에서 7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반면 공공부문에서는 9,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일자리 감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성의 경우 18,000개의 일자리가 증가하였지만 여성의 경우 27,000개의 일자리가

3) 이코노미스트, 2011년 11월 26일자, <http://www.economist.com/node/21539932>

4) Heidi Hartmann, Jocelyn Fischer, and Jacqui Logan(2012), "Women and Men in the Recovery: Where the Jobs Are Women Catching Up in Year Three", Institute for Women's Policy Research Briefing Paper, Publication #C400.

〈표 1〉 경기회복기 산업별 고용증가율과 성별분포

	산업별 고용증감 (2009년 7월~2012년 6월)		여성의 산업별 분포 (2009년 6월)		남성의 산업별 분포 (2009년 6월)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광림	22.8%	1	0.1%	11	0.9%	11
전문직/사업서비스	8.8%	2	11.4%	4	13.8%	3
교육/의료서비스	5.8%	3	22.8%	1	6.6%	7
여가/환대	3.9%	4	10.5%	5	9.5%	5
제조	2.0%	5	5.2%	7	12.8%	4
무역/운송/설비	1.7%	6	15.7%	3	22.4%	1
기타 서비스	-0.1%	7	4.4%	8	3.9%	9
금융	-0.2%	8	7.1%	6	4.8%	8
정부	-2.8%	9	19.8%	2	14.8%	2
정보통신	-5.7%	10	1.8%	9	2.5%	10
건설	-8.2%	11	1.2%	10	8.0%	6

주: 고용이 증가한 산업은 음영 처리함.

자료: Heidi Hartmann, Jocelyn Fischer, and Jacqui Logan(2012).

사라졌다. 남성이 공공부문에서 주로 경비, 사회간접자본 건설, 관리직에 주로 몰려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 주로 사회복지사업 또는 교육부문에 몰려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 내에서 경제 위기의 여파도 비대칭적일 수밖에 없었다.⁵⁾

각 산업의 고용증가율을 성별로 구분해 보면,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받은 불이익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여성의 고용증가율(표 2)은 전체 고용증가율(표 1)에 못 미친다. 제조업과 무역/운송/설비부분의 경우 전체고용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고용은 줄어들었다. 물론 남성의 경우 정반대의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경기회복기에 여성 고용량의 더딘 증가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진출하는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모든 산업에 걸쳐 여성고용이 전체고용에 약간씩 못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5) *ibid.*

〈표 2〉 경기회복기 산업별/성별 고용증가율

(단위 : %)

	여성고용 증감 (2009년 7월~2012년 6월)	남성고용 증감 (2009년 7월~2012년 6월)
광림	17.5	23.6
전문직/사업서비스	6.8	10.4
교육/의료서비스	4.8	9.1
여가/환대	3.5	4.3
제조	-2.7	4.0
무역/운송/설비	-1.8	4.2
기타 서비스	-0.4	0.2
금융	-2.4	3.2
정부	-3.1	-2.3
정보통신	-8.6	-3.6
건설	-11.4	-7.7

주: 고용이 증가한 산업은 음영 처리함.

자료: Heidi Hartmann, Jocelyn Fischer, and Jacqui Logan(2012).

■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요인

이상에서 살펴본 바로는 여성에 대한 고용기회의 부족이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경제활동참가율 하락)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와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에 관한 설명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가설은 여성의 인적자본이 남성과 달리 시장과 비시장활동 모두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활동과 비시장활동에서 오는 편익의 차이가 크지 않고, 시장상황이 나빠져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보육비를 절감하기 위해 여성들이 노동시장을 떠난다는 것이다.⁶⁾ 이는 노동수요측 요인(강제적 이탈)이 아닌 노동공급측 요인(자발적 이탈)을 강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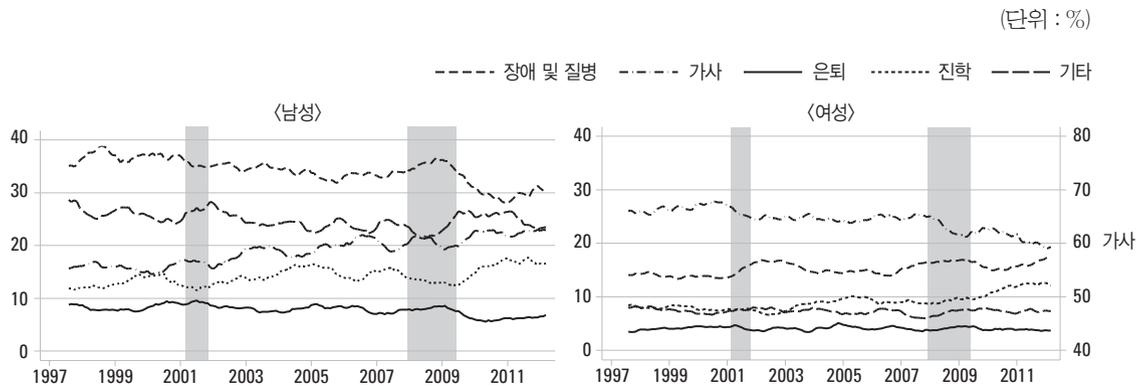
이 두 가지 요인을 구분하기란 쉽지 않은데, 남성의 경우 장기간 실업 상태가 지속되어 구직 활동을 포기하면 실망실업자(discouraged worker)로 분류되어 수요 측 요인을 어느 정도 예측할

6) The Nation, 2012년 5월 7일자, 'The Great Recession Is Pushing Women Out of the Workforce'.

수 있지만, 여성의 경우 스스로를 실망실업자가 아닌 가사종사자로 규정하곤 하기 때문이다.⁷⁾

[그림 5]는 25~54세의 인구⁸⁾ 중 노동력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원인별로 분석한 것이다.⁹⁾ 인구통계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에서 구직활동을 포기한 채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에게 그 사유를 질문하였는데, 그 이탈사유는 ① 은퇴 ② 장애 및 질병 ③ 진학 ④ 가사 ⑤ 기타이다. 남성의 경우에는 ‘장애 및 질병’ (30%)으로 가장 많이 이탈하였으며 그 밖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고루 분포된 반면 여성의 경우 ‘가사’ (60%)가 압도적이다.

[그림 5] 25~54세 노동시장 이탈 요인별 비율



자료 : Heidi Hartmann, Jocelyn Fischer, and Jacqui Logan(2012).

그런데 [그림 5]에서 보여주는 결과는 앞서 말한 가설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즉 경제위기 이후 여성의 가사를 위한 이탈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남성의 가사를 위한 이탈(stay-at-home fathers)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진학을 위해 노동시장을 떠나는 여성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사와는 달리 진학을 위한 이탈은 향후 여성들의 인적자본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기

7) 결과적으로 이는 경제위기시 실망실업자 수를 축소시키게 된다.

8) 2012년 5월 이들은 전체노동력의 약 63%를 차지하였다.

9) Hotchkiss, J. L., Pitts, M. M. and Rios-Avila, F.(2012), “A Closer Look at Nonparticipants During and After the Great Recession”, Federal Reserve Bank of Atlanta Working Paper 2012-10.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며, 육아휴직이나 유연한 근로시간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고숙련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시장 장벽을 허무는 정책만 따라준다면, 경제성장의 큰 동력으로 기여할 것이다.

■ 맺음말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위기 이후 하락하였다. 어떤 가설에 따르면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정체되는데, 그렇다면 미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천장에 부딪혀서 앞으로 더 상승할 여지는 없는 것일까? 그러나 우리는 최근의 하락이 대부분 경기순환적인 요소로 설명된다는 것을 보았다.

미국 여성의 고용량이 경기회복 과정에서 남성 고용량처럼 빠르게 증가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성의 고용기회가 많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최근 공공부문 축소와 작은정부를 지향하는데 이는 잠재적으로 여성정책과 충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공부문 내에서도 성별직종분리(occupational sex segregation)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성정책적 판단 없이 특정 산업에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여성 일자리를 상대적으로 위축하게 만들 것이다.

한국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초기에 여성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이는 은행처럼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진출해 있는 부문이 구조조정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위기 이후 회복도 빨랐는데, 많은 여성들이 비정규직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줄어든 가장의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노동시장으로 뛰어드는 부가노동자효과가 크게 작용했다는 점 때문이다.¹⁰⁾ 꾸준히 증가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최근 정체되어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앞으로 이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성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판단이 요구된다. **KLII**

10) 한국은 위기 이전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았기 때문에 위기 이후 부가효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졌지만, 미국의 경우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줄곧 상승하여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부가노동자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